

해남 땅끝 '달마산 달마고도' 인기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개통한 달마산의 들레길 '달마고도(遶摩古道)'가 등반객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돌들이 깔려있는 '너덜'을 건너는 등반객들.

해남 땅끝의 달마산 들레길 달마고도(遶摩古道)가 남도명품길로 거듭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외지 단체 등반객들이 대거 찾는 등 개통 2개월 여만에 힐링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개통한 달마산의 달마고도가 등반객들의 발길로 최근 북적이고 있다.

주말 등에는 하루평균 800여 명의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은 이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붐비기 일쑤다.

특히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개통 2개월 여만에 주말·휴일 평균 500여 명 찾아 힐링 트레킹 코스로 각광...해남군 '관광상품' 육성

코스로 꾸며져 산악회는 물론 직장 동료나 동호회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달마고도는 천년고찰 미황사를 출발해 천년숲길~이진리임도~달마고도길~도솔봉임도~천년숲길을 거쳐 미황사로 돌아오는 17.7km로 짜여져 있다.

기암괴석이 아름다워 남도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달마산(489m) 중턱을 따라 조성된 달마고도는 순수 인력으로만 시공했으며, 수려한 산세와 남도 바다의 너른 품을 조망할 수 있는 4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1코스는 미황사~큰바람재 구간으로 2.71km이다. 태고의 땅을 찾아 큰바람재를 넘는 길로 미황사와 산지습지, 너덜, 암자터, 편백나무 숲, 수정굴 등이 있다.

2코스는 큰바람재~노지랑골 사거리 구간으로 4.37km이다. 문바우골 너머 큰금샘을 찾아가는 길로 천제단 암자터, 떡갈나무고목, 너덜암자터, 미타혈, 큰금샘, 작은금샘 등이 있다.

3코스는 노지랑골 사거리~물고리재 구간 5.63km로 하숙골 옛길, 노간주나무 고목, 편백나무 숲 등으로 이뤄졌다.

4코스는 물고리재~인길~미황사 구간으로 5.03km이다. 천년의 숲을 따라 미황사 가는 길로 물목리재, 도솔암 용담굴, 편백나무 숲 미황사 부도전 등이 있다.

해남군은 '힐링의 길' 달마고도를 관광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트레킹 가이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트레킹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달마고도를 소개하고 동반산행 등 걷기여행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또 명품길을 알리기 위해 5월과 10월 걷기대회와 숲속 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트레킹 가이드를 운영하고 이정표와 마을로 연결되는 지선 정비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음반 제작도 지원한다

지역 크로스오버 음악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음악창작소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크로스오버는 '교차', '융합'을 의미한다.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크로스오버는 국악과 클래식, 융합, 재즈와 록의 협연, 가요와 성악의 결합 등 음악 장르의 개념이 융합되어 새롭게 창조된 음악이다.

이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음악창작소가 크로스오버 우수 뮤지션을 선발해 음반 제작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음악장르에 관계없이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뮤지션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융합된 순수창작곡 실연영상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음악창작소나 정부 제작지원금을 받은 단체(개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전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www.ogamtong.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남음악창작소는 2016년 9월

전남음악창작소, 크로스오버 음반제작지원사업 추진

오는 17일까지 신청 받아...전남지역 뮤지션 누구나

음반 제작은 물론 쇼케이스 등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크로스오버 음반제작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17일까지 온라인(www.ogamtong.com)으로 신청 받는다.

음반제작지원, 쇼케이스, 음악프로그램 및 공연 행사 등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미래산업과 최치현 과장은 "이번에 신청 받는 크로스오버 음반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호남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우수 뮤지션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소수 장르에 대한 음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전남 지역 인재 발굴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관 이후 지역 음악산업 조성을 위해 뮤지션 창작활동 지원 및 홍보코딩 교육, 저작권 교육 등 다양한 음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관 2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역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크로스오버 교육으로 직접 작사·작곡한 '강진아리랑'을 발표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의 성장과 기를 마련을 위한 대중음악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남지역 대표 공공형 음악창작소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최제영 기자

“영화 ‘1987’ 연희네슈퍼 보러 목포로 오세요”

목포시, 서산동 일대 근현대 박물관 거리...촬영 당시 모습 재현 위해 협의중



목포시가 최근 관객몰이 중인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희네슈퍼를 관광상품화한다.

서산동에 위치한 연희네슈퍼는 영화 속에서 이한열역의 강동원과 연희역의 김태리가 슈퍼 앞 평상에서 시국의 아픔을 진술하게 여기는 장면이 촬영됐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 연희가 거리의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촬영되는 등 연희네슈퍼는 영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

'1987'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희네슈퍼 등 서산동 일대는 마을 전체가 근현대 박물관 거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옛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서산동 골목길은 근대에 일본인

유곽거리가 조성된 곳으로 아직까지 옛 건축물이 남아 있다. 연희네슈퍼 뒤에 태평양전쟁 말기 공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 조성한 대형 방공호(길이 31M)가 남아있는 등 역사적 아픔도 보존돼 있다.

연희네슈퍼 인근의 시화마을 골목길은 근대 목포의 모습이 진하게 남아있어 '1987'에서도 1980년대 모습을 재현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시 관계자는 "역사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희네슈퍼를 영화 촬영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인 CJ 엔터테인먼트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1987'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희네슈퍼'를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 겨울방학맞이

어린이 특선 영화 상영

곡성군은 관내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문화센터 동아이트홀에서 1월 10일을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5주간 총 5편의 어린이 특선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은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며, 상영 작품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영화 목록은 1월 10일 '부들부와 많이 있어', 1월 17일 '호비와 동화나라 대모험', 1월 24일 '아기배달부 스토리', 1월 31일 '피터와 드래곤', 2월 7일 '배지킴이 보보'를 상영한다.

곡성군은 겨울방학 특선 영화 상영이 방향을 맞춘 아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영 영화는 모두 무료로 관람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관광문화과(061-360-83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지역공감 마케팅 창조 전문기업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